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jinyoung9212@gmail.com

글로벌교육협약(GCE) 기반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SRE) 통합 모델 연구

한진영(가톨릭관동대학교 · 호텔관광경영학전공 · 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8.59.363>

I. 서론

■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인간 존재의 의미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새롭게 성찰하도록 요청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교육적 비상사태(educational emergency)’로 진단하며,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글로벌교육협약(Global Compact on Education, 이하 GCE)」을 선포하였다. 교황은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적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였다.² 특히 GCE가 제시한 인간 중심, 청소년의 목소리 경청, 여성 지위 향상, 가족 역량 강화, 환대, 새로운 경제·정치 모색, 공동의 집 보호라는 7가지 핵심 약속은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성공이나 경쟁력 향상에 한정하지 않

1 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Global Compact on Education: Vademecum*,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0, p.7.

2 Brothers of the Christian Schools, *Intercom: Lasallian Family Magazine*, No. 153, “Global Compact on Education”, January 2022, pp.3~5.

고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선을 향한 책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GCE의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GCE는 인간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며,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적 도야와 내적 성숙을 강조해 온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을 보편적 연대와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휴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톨릭 대학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교육적 사명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는 가톨릭 대학이 학문적 탁월성과 함께 인간 존엄성, 공동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³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글로벌교육협약(GCE)은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교육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따라서 오늘날 가톨릭 대학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톨릭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성찰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대학 운영 전반에 구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대학은 인간 존엄성과 전인적 성장에 기반한 교육을 수행해 왔으나, 오늘날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과 대학 내부의 인격 도야에 치중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톨릭 교육은

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1990년 8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편찬,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편찬, 제12항, 제13항.

4 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같은 책.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대학’은 지성의 복음화와 학문적 성찰을 통해 사회적 구조와 공동선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최후의 지성적·사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위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 가톨릭 대학의 교육은 개별 신앙 양성이나 내면적 성찰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기후 위기나 사회적 약자 확대와 같은 공적 실천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낸다. 최근 한국 가톨릭 대학들은 탈종교화와 세속화의 도전, 대학 경영의 난관, 4차 산업혁명 및 생태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톨릭 정체성 재정립과 새로운 ‘CU(Catholic University) 아젠다’ 세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⁵ 그러나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들은 교과 및 프로그램의 파편화, 체계적 평가 지표의 부재, 외적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편중 등 여전히 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고등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교육(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이하 SRE)의 방향성과도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⁶ 본 연구에서 다루는 SRE는 기존 학계에 완결적으로 확립된 고유명사라기보다, 종교교육의 인격형성 전통, 시민교육의 공공성, 서비스러닝의 실천성,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의 공동선 지향성을 통합하는 본 연구의 목적(GCE와의 연결 및 통합 모델 도출)을 위해 분석용으로 임시 설정한 ‘작업 가설(Working Framework)’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톨릭 대학 SRE의 실천적 한계점을 논리

5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2023, 189~196쪽.

6 B. L. Hall & R. Tandon (Eds.), *Socially responsible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knowledge democracy*, Brill Sense, 2021, p.45.

적 출발점으로 삼아, 글로벌교육협약(GCE)에 내재된 휴머니즘의 핵심 가치와 인간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GCE-SRE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현대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학적 과제와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한국 가톨릭 대학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현황과 한계

1. 가톨릭 인간학 전통과 인격 형성 교육체계

가톨릭 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과 전인적 성장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추구해 왔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학문적 탁월성과 복음적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면서 학생들의 지성, 인성, 영성, 공동체성을 균형있게 함양하는 전인교육(Integral Education)을 지향하며, 가톨릭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기본 원리로 자리매김하였다.⁷⁾

이러한 전인교육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 가톨릭 대학의 교양교육 체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부대학과 인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간학 1·2」 교과를 운영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존엄성에 대한 성찰을 핵심 교양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프란치스코칼리지와 인성교육원을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회의 심장부」, 제12항, 제13항 및 제21항 참조.

중심으로 「참삶의 길 I · II」 교과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는 전인교육원을 중심으로 인간·지성·인성·영성 영역의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⁸

이처럼 대학마다 교과목의 명칭과 운영 체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과 윤리적 판단, 공동체 의식 및 책임 있는 시민성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주로 학생 개인의 자기성찰과 인격 형성, 대학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 내면화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 왔다. 물론 인간 존엄성, 공동선, 사랑과 봉사 등의 가치가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되어 왔지만, 최근 글로벌교육협약(GCE)이 강조하는 사회적 포용, 생태적 책임, 보편적 연대, 교육적 동맹과 같은 공공적 실천의 차원까지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문화적 다양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는 대학이 개인의 전인적 성장뿐 아니라 공동선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시민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인간학 전통은 사회적 책임교육(SRE)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이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통합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철학적 전환이 요구된다.⁹

8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 1·2』,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주요교과 안내-인간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 URL: https://catholic-college.catholic.ac.kr/catholic_college/humanities-social-sciences/info.do;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과정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URL: <https://www.cu.ac.kr/life/academic/lesson>;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전인교육 교과과정」,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홈페이지, URL: https://scc.sogang.ac.kr/wholeperson/wp002_004.html.

9 The Holy See, “Video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Organised by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Global Compact on Education. Together to Look Beyond’” [Video message], The Vatican, 2020; Congregatio de Institutione

2. 가톨릭 대학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실천 양상

1) 환대와 포용: 관계적 인간 형성의 실천

GCE가 강조하는 환대와 포용은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교육(SRE)은 학생들이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가톨릭 대학들은 다문화 교육과 상호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환대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¹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한국어·다문화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¹¹ 서강대학교 역시 포용 사회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¹²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형제애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환대와 포용은 타인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GCE가 제시하는

Catholica, 앞의 책, 10~16.

10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제도안내>, 2026; 가톨릭대학교 융합전공학부, <다문화 사회전문가 융합전공 교육과정 안내>, 2026.

11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정보, <캠퍼스에서 체험하는 '다문화' 보도자료>, 2026;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미래라이프대학, <한국어다문화학과 소개>; 「대구가톨릭대, 차별화된 다문화 교육으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저널』, 2011년 5월 2일.

12 서강대학교 HUSS포용사회사업단, <포용사회 마이크로디그리 및 교과과정 안내>, 2026.

관계적 인간관(Homo Relationalis)을 구체화한다. 이는 인간 형성의 범위를 개인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로 확장시키는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핵심 특징을 보여준다.

2) 생태적 전환과 공동선: 통합적 인간관의 확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GCE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 상호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는 통합생태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¹³¹⁴ 이러한 관점은 인간 형성의 범위를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시키며, 공동선과 생태적 책임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한국 가톨릭 대학들은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ESG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생태 영성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ESG 기반 교육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¹⁵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일반교양의 심화인성 영역에 「통합생태론」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⁶ 서강대학교 역시 지속가능성, 디지털 윤리,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과를 운영하며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실천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13 Francis,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Encyclical letter], The Vatican, 2015.

14 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op. cit.*, p.16.

15 가톨릭대학교 지역협력센터,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공공기관 ESG 협약 체결 안내〉, 2026.

16 대구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2025, 일반교양-심화인성 영역 「통합생태론」.

17 서강대학교 HUSS포용사회사업단, 〈포용사회 마이크로디그리 및 교과과정 안내〉, 2026;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전인교육원 개설 기초교양 필수 교과과정 로드맵〉, 2024.

생태적 전환은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통합적 인간관의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GCE의 휴머니즘이 현대 교육 속에서 구체화되는 중요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태적 전환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나 이용자가 아닌 창조 세계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재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전통적 교육이 인간의 내적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에 초점을 두었다면, GCE가 제시하는 통합생태론은 인간 형성의 범위를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확장한다. 이는 인간과 사회, 자연을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던 근대적 인간관을 넘어,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관계적·통합적 인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적 전환과 공동선의 실천은 단순한 환경보호 활동이나 지속가능성 교육의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는 교육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을 공동체와 창조 세계 안에 위치한 책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GCE가 지향하는 휴머니즘이 고등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적 동맹과 연대: 공동체적 책임의 구현

GCE가 제안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은 교육을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교황은 이를 ‘교육적 동맹(Educational Pact)’이라 명명하며, 학교와 대학, 가정,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하였다.¹⁸

한국 가톨릭 대학들은 이러한 정신을 대학 간 협력과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CU12)이다. CU12는 개별 대학 중심의 경쟁 구조를 넘어 교양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인간학, 윤리학, 인문학 분야의 교과목을 공동 개방하고 상호 학점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연대적 실천은 교육을 대학 내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교육적 동맹은 대학 간 협력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이는 GCE가 제시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 한국 가톨릭 대학 SRE의 구조적·실천적 한계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은 몇 가지 구조적·실천적 한계를 안고 있다.²⁰

첫째, 사회적 책임교육이 일부 교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에

18 The Holy See,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Launch of the Global Compact on Education," September 12, 2019.

19 한국가톨릭공유대학 홈페이지, <CU12 통합 공유대학 학사운영 플랫폼>, 2026.

20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2023, 189~196쪽; 황경훈, 「종교의 공적 역할과 '가톨릭 시민' 교육 탐구」, 『종교교육학연구』, 70(2022), 131~154쪽.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전체의 교육철학이나 학사운영 구조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학별로 추진되는 사회공헌 활동과 생태·다문화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각 부서나 사업단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어 통합적 교육체제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적 책임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가 부족하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나 시민적 책임 의식의 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다.

넷째, 대학 재정과 행정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교육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섯째, SRE가 GCE의 휴머니즘적 가치와 인간학적 성찰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실천 활동은 단순한 외적 봉사 활동이나 단발성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현행 한국 가톨릭 대학의 SRE는 개별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를 넘어 인간 존엄성, 공동선, 관계적 인간관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과 대학의 건학이념 및 제도적 시스템이 긴밀히 결합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개별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철학과 인간학적 토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교육협약(GCE)은 가톨릭 대학의 전통적 인간학을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의 실천으로 확장하는 규범적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교육협약(GCE)에 내재된 휴머니즘과 인간학적 전환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가톨릭 대학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고자 한다.

III. 글로벌 교육협약(GCE)의 휴머니즘과 패러다임 전환

1. GCE의 7가지 핵심 약속에 내재된 휴머니즘의 가치

글로벌교육협약(GCE)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휴머니즘적 비전을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GCE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보편적 형제애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문화를 제안하며,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¹ 또한 가톨릭 대학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존엄과 인권, 형제애와 협력, 기술과 통합생태론, 평화와 시민의식, 문화와 종교 간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형성과 공동선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인간을 경쟁과 효율성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넘어, 관계성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인간 이해를 제시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교육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세대와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적 동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GCE는 하나의 교육 정책을 넘어 인간 존재와 공동체에 대한 휴머니즘적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머니즘은 GCE가 제시한 7가지 핵심 약속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인간 중심의 원칙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에 있음을 확인하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21 “Pope Francis calls for new educational pact during audience with UNESCO and experts,” *Vatican News*, February 13, 2020.

는 요청은 미래 세대를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참여적 인간관을 반영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족 역량 강화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관계적 성장을 강조하며, 환대의 문화는 타자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형제애의 실천을 의미한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와 정치의 모색은 교육이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보여주며, 공동의 집 보호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통합생태론적 세계관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²²

결국 GCE의 7가지 약속은 각각 독립적인 실천 과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관계성, 연대성, 공동선, 생태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가치 위에 형성된 하나의 통합적 휴머니즘을 구성한다. 이러한 휴머니즘은 전통적인 개인 중심 교육관을 넘어 인간을 공동체와 세계 안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인간학적 전환을 의미하며, 가톨릭 대학이 사회적 책임교육(SRE)을 통해 구현해야 할 교육철학의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GCE는 인간 형성의 목적을 개인적 성공이나 경쟁력 향상에 두지 않고, 타인과 사회, 그리고 공동의 집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인간의 양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개인적 도야에서 보편적 연대로의 인간학적 전환

1) GCE가 요청하는 관계적 인간관

글로벌교육협약(GCE)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교육적 위기의 근

22 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op. cit.*, pp.8~9.

본 원인을 인간 존재에 대한 단절된 이해에서 찾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사회적 양극화, 생태 위기와 같은 복합적 문제들이 인간을 경쟁과 효율성의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GCE는 교육을 통해 인간을 다시금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타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연결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CE는 앞서 살핀 가톨릭 교육의 전통적 인간학을 부정하기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한다. 인간 존엄성과 인격 형성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타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즉, 개인의 내적 성숙과 수직적 인격 도야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연대 속에서 성장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황은 GCE 출범 메시지에서 교육을 “희망의 행위”라고 규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적 동맹(Educational Pact)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³ 여기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세대와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GCE의 7가지 핵심 약속은 이러한 관계적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간 중심 교육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환대와 포용은 타자를 경쟁의 상대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

23 The Holy See, “Video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Organised by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Global Compact on Education, Together to Look Beyond’” [Video message], October 15, 2020.

도를 의미하며, 새로운 경제와 정치에 대한 모색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동의 집 보호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생태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²⁴

이처럼 GCE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자기 완성에 머무는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연대적 인간(Homo Relationalis)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가톨릭 인간학이 강조해 온 인간 존엄성과 인격 형성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그 실천의 범위를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2)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의 확장

GCE가 제시하는 관계적 인간관은 인간 형성의 목적을 개인의 내적 성숙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타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교육의 지향점을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성장은 더이상 개인적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GCE를 통해 젊은 세대가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 안에서 연대와 책임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⁵ 이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고 인간 존엄성을 증

24 “Global Compact on Education,” *op. cit.*, pp.11~20.

25 J. T. de Mendonça, “What the Church Expects from Catholic Universitie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Journal*,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January 2023, p.3.

진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환대와 포용, 새로운 경제와 정치에 대한 모색, 그리고 공동의 집 보호와 같은 GCE의 핵심 가치는 인간 형성의 범위를 개인에서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인간학이 강조해 온 인간 존엄성과 윤리적 책임을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 윤리적 가치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연대, 그리고 생태적 책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GCE가 지향하는 인간상이 완성된다. 따라서 GCE는 인간 형성의 목적을 개인적 도야에서 보편적 연대로 전환시키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책임적 인간(citizen for others)의 형성을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3.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매개

가톨릭 대학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유지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고유한 정체성이다. 가톨릭 대학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전문 인력 양성에 있지 않으며, 복음적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회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의 교육은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의 증진, 공동선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교회의 심장부』는 가톨릭 대학의 본질을 그리스도 교적 영감, 신앙과 학문의 통합, 복음적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인류 가족과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서 찾고

있다.²⁶ 이와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은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톨릭 대학이 인간 형성과 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회 문헌들은 가톨릭 대학이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보여준다.²⁷

그러나 글로벌교육협약(GCE)은 이러한 전통적 정체성을 새로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도록 요청한다. GCE는 인간 존엄성과 전인 교육이라는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연대, 생태적 책임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특히 환대, 포용, 공동선, 공동의 집 보호와 같은 가치는 가톨릭 대학이 더 이상 대학 내부의 인격 형성에 머무를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공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GCE의 핵심 가치는 가톨릭 대학이 지녀온 전통적인 정체성과 전인교육의 유산을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교육(SRE)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적·제도적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SRE는 특정 교수·학습 방법이나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가톨릭 대학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교육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이자 작업 가설(Working Framework)이다. SRE는 종교교육이 강조해 온 인격 형성의 전통, 시민교육의 공공성, 서비스러닝의 실천성,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의 공동선 지향성을

2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편찬,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90, 242쪽.

27 J. T. de Mendonça, "The Global Compact on Education: A Response to the Crisi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Journal*,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July–September 2024, p.4.

포괄적으로 연결한다.²⁸

특히 시민교육의 공공성은 뱅크스(Banks)가 강조한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뱅크스는 현대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변혁적 시민(transformative citizen)’의 형성을 제시하였다.²⁹ 이러한 관점은 GCE가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의 실현이 교육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SRE의 이론적 기반을 보완한다.

더 나아가 SRE는 서비스러닝과 구별된다. 서비스러닝이 지역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면, SRE는 대학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 운영 체계 전반에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교육 패러다임이다.³⁰ 또한 시민교육이 민주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둔다면, SRE는 인간 존엄성, 연대, 환대, 생태적 책임과 같은 인간학적·윤리적 가치를 함께 강조한다.³¹ 나아가 가톨릭 사회교리가 공동선과 연대성의 원리를 제공한다면, SRE는 이러한 원리를 고등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영역으로 확장하는 교육적 구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³²

결국 GCE 이후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은 전통적 전인교육의 수행을 넘어 공동체의 고통에 응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교육 기관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톨릭 인간학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의 실현을 지향

28 황경훈, 「종교의 공적 역할과 ‘가톨릭 시민’교육 탐구」, 『종교교육학연구』, 70(2022), 131~154쪽.

29 J. A. Banks,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2008), p.136.

30 김현우·이정미, 「소규모 기독교 대학의 서비스러닝 질적사례 연구: 서비스러닝 효과와 학습정서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1(2022), 61~96쪽.

31 황경훈, 앞의 글, 131~154쪽.

32 Markus Schlagnitweit,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기본소득』, 12(2022), 123~136쪽.

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교육(SRE)은 GCE의 휴머니즘이 가톨릭 대학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핵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GCE를 가톨릭 대학의 전통적 인간학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교육철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인교육의 지향을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의 실천으로 확장하는 규범적 틀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CE는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이 사회적 책임교육(SRE)이라는 교육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매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GCE-SRE 통합 모델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

IV. GCE 기반 사회적 책임교육의 통합 모델과 과제

1. GCE-SRE 통합 패러다임의 구조와 특징

본 연구가 제안하는 GCE-SRE 통합 패러다임은 글로벌교육협약(GCE)의 휴머니즘적 가치가 가톨릭 대학의 교육체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교육(SRE)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안하는 하나의 이론적·해설적 틀(interpretative framework)이다.

이 모형은 GCE가 제시한 가치가 단순한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제도와 교육 실천,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구체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제시한다. 본 통합 모델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념적 토대(Ideological Foundation)’이다. 이는 GCE의 7가지 핵심 약속에 내재된 인간 존엄성, 연대, 환대, 공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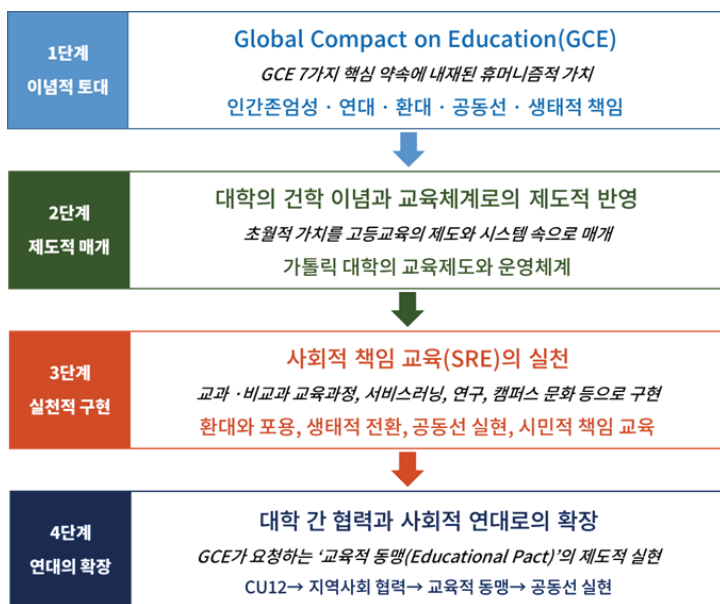
생태적 책임과 같은 가치들이 교육의 근본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가톨릭 대학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과 교육 목적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도적 매개(Institutional Mediation)’ 단계이다. 이는 GCE의 가치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체계 속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대학은 인간 존엄성, 공동선,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를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행정 및 지원 체계 속에 제도화함으로써 교육 실천의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적 구현(Practical Implementatio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GCE의 가치들은 환대와 포용, 생태적 전환, 공동선 실현, 시민적 책임 교육 등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구체적 실천 양상에 해당하며, 인간 존엄성과 관계적 연대의 가치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연대의 확장(Expansion of Solidarity)’ 단계이다. 이는 개별 대학 차원의 실천이 대학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 나아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CU12)과 같은 협력 체계는 GCE가 강조하는 교육적 동맹(Educational Pact)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GCE-SRE 통합 패러다임은 ‘이념적 토대 → 제도적 매개 → 실천적 구현 → 연대의 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GCE의 가치로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글로벌 교육협약(GCE) 기반 사회적 책임교육(SRE)의 통합 모형

2. 인간학적 회복을 위한 가톨릭 고등교육의 과제

오늘날 고등교육은 기술발전과 시장 중심 경쟁 체제 속에서 인간 형성이란 본래의 목적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CE가 제시하는 휴머니즘은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앞서 살펴본 GCE-SRE 통합 모델을 바탕으로, 가톨릭 고등교육이 인간학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인간 존엄성을 교육의 중심 가치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대학은 전문 지식과 직업 역량을 함양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공동체적 책임을 성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를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교육, 생태교육, 서비스러닝, 종교교육이 상호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인간 형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체계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교육적 동맹의 확대이다. 대학은 더이상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시민사회, 교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공동선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으로 양성하려는 GCE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GCE 기반 사회적 책임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인간학적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V. 결론

■ 본 연구는 글로벌교육협약(Global Compact on Education, GCE)에 내재된 휴머니즘의 가치와 인간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러한 가치가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SRE)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CE의 7가지 핵심 약속에 담긴 인간관과 교육철학을 검토하고, 한국 가톨릭 대학의 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교육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GCE의 가치가 대학의 제도와 교육 실천,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교육의 인격 형성 전통, 시민교육의 공공성, 서비스러닝의 실천성, 가톨릭 사

회교리의 공동선 지향성을 통합한 연구 분석용 작업 가설(Working Framework)로서 GCE-SRE 통합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GCE는 단순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제안을 넘어 인간 이해의 전환을 요청하는 휴머니즘적 교육 비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GCE가 제시하는 인간 중심, 환대, 연대, 공동선, 생태적 책임의 가치는 인간을 경쟁과 효율성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 타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관계적 인간관을 제시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적 성공이나 역량 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인간 형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적 가톨릭 인간학이 강조해 온 인간 존엄성과 인격 형성의 가치가 GCE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 가톨릭 교육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전인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GCE는 이러한 인간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생태적 전환, 교육적 동맹과 같은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 형성의 범위를 개인의 내면적 성숙에서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공동의 집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하는 인간학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SRE)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환대와 포용 교육은 관계적 인간 형성을 촉진하고, 생태적 전환과 공동선 교육은 통합적 인간관을 확장하며, 교육적 동맹과 연대는 공동체적 책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SRE는 가톨릭 고등교육 현장에서 GCE의 휴머니즘적 비전을 다층적으로 구체화하는 실천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GCE-SRE 통합 패러다임은 GCE의 휴머니

증적 가치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체계 속에서 제도화되고, 사회적 책임교육을 통해 실천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선 실현을 향한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가톨릭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공공적·교육적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교육이 지속가능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사회적 책임교육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단발성 봉사 프로그램의 외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엄성과 관계적 인간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 체계 전반에 통합적·제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CU12) 등 대학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GCE가 강조하는 교육적 동맹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결국 GCE는 현대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교육철학적 응답이며, 사회적 책임교육(SRE)은 이러한 휴머니즘적 비전이 가톨릭 대학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교육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가톨릭 대학은 전통적 인간학의 가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연대를 실현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교회 문헌 (Ecclesiastical Documents)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1990년 8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편찬,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편찬.

Brothers of the Christian Schools, *Intercom: Lasallian Family Magazine*, No. 153, “Global Compact on Education”, January 2022, pp.3~24.

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Global Compact on Education: Vademecum*,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0, pp.1~36.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What the Church Expects from Catholic Universitie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Education Journal*, 2023, pp.1~8.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The Global Compact on Education: A Response to the Crisi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Education Journal*, 2024, pp.1~12.

Francis,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Encyclical letter], The Vatican, 2015, URL: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150524_enciclica-laudato-si.html.

Lasallian Family, “Global compact on education”, *INTERCOM*, 153(2022), pp.3~24.

The Holy See,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launch of the Global Compact on Education”, [Message], The Vatican, 2019.

The Holy See, “Video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organised by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Global Compact on Education. Together to look Beyond’” [Video message], The Vatican, 2020.

◆ 한국어 문헌 (Korean Literature)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 1·2』,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김현우·이정미, 「소규모 기독교 대학의 서비스러닝 질적사례 연구: 서비스러닝 효과와 학습정서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1(2022), 61~96쪽.

대구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2025.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2023.

황경훈, 「종교의 공적 역할과 ‘가톨릭 시민’교육 탐구」, 『종교교육학연구』, 70(2022), 131~154쪽.

Markus Schlagnitweit,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본소득: 가톨릭 사회교리와 신학의 맥락에서」, 『기본소득』, 12(2022), 123~136쪽.

◆ 서구 문헌 (Western Literature)

Banks, J. A.,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2008), pp.129~139.

Hall, B. L. & Tandon, R. (Eds.), *Socially responsible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knowledge democracy*, Brill Sense, 2021.

◆ 인터넷 및 언론 자료 (Internet & Media Resources)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URL: <https://oia.catholic.ac.kr/oia/international-student/faq.do?mode=view&articleNo=260149>.

가톨릭대학교 융합전공학부, URL: <https://major-convergence.catholic.ac.kr/>

major_convergence/curriculum-info/multicultural_educ_track.do.

가톨릭대학교 지역협력센터, URL: <https://www.catholic.ac.kr/ko/campuslife/notice.do?mode=view&articleNo=267153>.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주요교과 안내 - 인간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 URL: https://catholic-college.catholic.ac.kr/catholic_college/humanities-social-sciences/info.do.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과정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URL: <https://www.cu.ac.kr/life/academic/lesson>.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정보, URL: https://www.cu.ac.kr/introduction/result/press?mode=view&mv_data=aWR4PTMxNDU0.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미래라이프대학, 〈한국어다문화학과 소개〉, URL: <https://academics.cu.ac.kr/home/about/Future/koreamulti/>.

대학저널, 〈대구가톨릭대, 차별화된 다문화 교육으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양성〉, 2011년 5월 2일, URL: <https://dhnews.co.kr/news/view/179510909899553>.

서강대학교 HUSS포용사회사업단, 〈포용사회 마이크로디그리 및 교과과정 안내〉, URL: https://sogangiis.sogang.ac.kr/sogangiis/D_3922_24083.html.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전인교육 교과과정」,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홈페이지, URL: https://scc.sogang.ac.kr/wholeperson/wp002_004.html.

한국가톨릭공유대학, 〈CU12 통합 공유대학 학사운영 플랫폼 및 교육과정 수강 안내〉, URL: https://www.cu12.ac.kr/el/main/main_form.acl.

Vatican News, “Pope Francis Calls for New Educational Pact during Audience with UNESCO and Experts,” February 13, 2020. URL: <https://www.vaticannews.va>.



■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글로벌교육협약(Global Compact on Education, GCE)에 내재된 휴머니즘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SRE)의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며 GCE-SRE 통합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에서는 GCE의 7가지 핵심 약속에 담긴 인간 존엄성, 연대, 환대, 공동선, 생태적 책임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톨릭 인간학이 관계적 인간관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의 실천 양상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GCE의 핵심 가치가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 운영 및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GCE-SRE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GCE는 인간 이해의 전환을 요청하는 휴머니즘적 교육 비전이며, SRE는 이를 가톨릭 대학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교육협약을 가톨릭 대학의 사회적 책임교육과 연결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가톨릭 대학이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글로벌교육협약(GCE), 사회적 책임교육(SRE), 가톨릭 대학, 휴머니즘, 인간학, 공동선, 교육적 동맹, 사회적 연대



An Integrated Model of 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in Catholic Universities Based on the Global Compact on Education

Han, Jinyou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Hotel & Tourism Management · Professor)

■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SRE) in Catholic universities based on Pope Francis'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GCE). It examines the humanistic vision of the GCE, focusing on its seven commitments: placing the human person at the center, listening to younger generations, advancing women, empowering the family, welcoming the vulnerable, renewing economics and politics, and safeguarding our common home. The study explores how Catholic anthropology can be extended from personal formation toward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person oriented toward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It also examines SRE practices and their limitations in Korean Catholic universities. Based on this analysis, an integrated GCE-SRE model is proposed, linking the core values of the GCE with curricula, institutional governance, and

social engage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GCE expands Catholic holistic education toward social responsibility, while SRE provides an educational paradigm for translating this vision into practice.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atholic universities to develop as educational communities committed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ommon good.

Keywords: Global Compact on Education (GCE), socially responsible education (SRE), Catholic universities, humanism, anthropology, common good, educational pact, social solidarity

- ◎ 투고 접수 2026. 06. 15.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5.